

“11일 한국 로켓 발사, 北 자극할 수도” 日 언론, 나로호 발사 쟁점화

핵 경계론·한반도 긴장 고조 우려 등 엉뚱한 시비

일본 언론이 오는 11일 한국 최초 우주 발사체 나로호의 발사를 앞두고 ‘북한 자극론’, ‘핵개발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3일 “나로호 발사가 성공하면 지난 4월에 위성탑재 로켓이라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가 실패한 북한을 제치고 세계 10번째의 ‘자체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가 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아사히는 “한국의 로켓

개발은 북한을 자극할 것이므로 국제사회는 복잡한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문은 한국이 로켓 개발을 러시아와 함께 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한국인 최초 우주비행사도 지난해 4월 러시아 우주선에 탑승했고, 11일 발사 예정인 나로호도 러시아와 공동 개발한 것을 거론하며 “이는 북한을 의심한 미국의 협력을 얻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맞서 로켓과 거의 같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탄도미사일의 개발 가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아사히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례안보회의에서 한국에 대해 사거리 300km 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의제가 될지가 관심사지만 주한미군 관계자는 “미국이 옹호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에 ‘아사히’에서의 우주평화이용의 핵심국가

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원자력발전 대국인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꿈틀거리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계 유수의 원자력발전 대국인 한국에서 핵무기 제조로 연결되는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론’이 슬금슬금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사히도 “한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 연료를 재이용하는 ‘핵연료 사이클’ 도입론도 강해지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경계감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3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 금융지구에서 수많은 추모객들이 아키노 전 대통령의 운구차량을 에워싸며 조의를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강운태 “대기업, 실적 호전에도 투자·일자리 외면”



○민중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사진)은 3일 “대기업들이 경영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최대 현안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꺼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가총액 상위 20개 상장사의 2분기 실적이 88조8천9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88조600억원에 비해 0.9%, 1분기(79조8천400억원)보다 11.3% 늘어 사상 최대 수준으로 회복했다”며 “하지만 30대 대기업의 투자는 32조5천900억원으로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15.7% 줄었고, 일자리도 작년보다 32.6% 감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대기업들은 이명박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따라 혜택만 받고 사회적 책임에는 무관심함을 보여주는 지표다”며 “정부는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정책방향도 대기업 짝사랑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 도와 준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 감사할 일이다”며 “김 지사는 기본적인 도리를 지켰고 매우 용기있는 처신이었다”고 칭찬했다.

그는 또 “주요선거의 문제는 아니지만 경상도 정치인들도 호남 출신 정치인들에게 사유가 합당할 때 김 지사처럼 주저없이 마음을 표했으면 좋겠다”며 “정치권에 여야를 초월한, 지역을 초월한, 청산 릴레이 감사 릴레이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박재순 “무안 한중산단 정부 지원을”



○한나라당 박재순(사진) 최고위원은 3일 “한·중 경제교류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무안기업도시 ‘한·중 국제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중 국제산업단지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추진하는 6개 사업 중 유일하게 외국자본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라며 “수교 17년만에 중국이 한국에 투자 승인한 최대 협력개발 사업임을 감안할 때 지자체 차원을 넘어 국가간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정부는 토지개발공사·농어촌공사·산업은행 등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국내자금 조달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호남 정책사업으로 선정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정현 “전북지사 편지, 용기있는 처신”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비례대표·사진)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감사 편지를 보낸 김안주 전북지사를 칭찬하는 글을 써 관심을 끌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제2의 전북지사를 기다리며’라는 글에서 “새만금 문제는 지역발전의 전환점이 될 중요한 사업”이라고 전제한 뒤 “지자체장 입장에서서는 가슴 졸여 온 사업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해주고, 또 적

“아파치 헬기 부대 당분간 계속 주둔”

주한미군 밝혀

주한미군은 오는 2012년경 아파치 헬기가 완전히 철수할 것이라던 국내 언론 보도와 관련, “아파치 대대는 가까운 장래동안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게 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날 국내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을 통해 “주한미군과 미 8군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능력을 유지한다는 공약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그렇기 말했다. 또 “미군은 아파치 헬기의 철수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英 ‘타미플루’ 부작용 증증

영국에서 신종플루 치료약인 타미플루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타미플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일간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이 3일 보도했다.

신문은 영국 의약품·건강제품통제국(MHRA)의 자료를 인용, 지난 4월 신종플루가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293건의 타미플루 관련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지난 주까지 보고된 부작용 사례는 모두 150건이었으나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사이에 143건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정부, 對테러·WMD 자금 동결 추진

北 제재 근거법안 마련

정부가 자금세탁 방지 목적으로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자금에 대한 동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특정 국가에 대해서도 이같은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어 향후 북한에 대해 한층 강력한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로부터 상호평가 보고서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범위를 금융 자산 외에 동산·부동산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시 관련 부처 사전 협의 없이 곧바로 이뤄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테러리스트와 테러단체에 대한 정의 규정과 함께 처벌 규정 도입이 가능한지와 다른 나라 즉 ‘국가’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또는 동결이 가능한지도 파악 중이다. WMD와 관련 해선 FATF가 주요 관심사항으로 여기고 있어, 정부는 WMD 제재 분야에 대한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모색 중이며 향후 도출된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도출할 방침이다.

풍차 돌때 발생한 저주파 음에 두통·어지럼증

日서 풍력발전 유해성 논란

일본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을 청정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풍력발전이 유해 논란에 휩싸였다.

풍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풍력발전의 핵심부인 풍차가 돌 때 발생하는 저주파 음으로 인해 두통이나 어지럼증, 이명 현상이 시달리고 있다며 민원을 속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니혼게이지가 신문에 따르면 풍력발전 단지가 들어서 있는 아이치현 도요하시시에 사는 한 주민(65)은 1년 반 전부터 몸 상태가 나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자택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풍력발전이 시작된 지 1년가량이 지난 시점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그 뿐 아니라 풍차에서 반경 2

본원출신 실제 합격자 중 80%가 여흥발학부터 공무원강좌 수강신청!! www.hanbitgosi.co.kr

중앙선관위 2009. 8. 22시제 1차시험 합격자 1084.7기 수석합격자 배출!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7.9 =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중합반 하루9시간 강의

한빛소방직전문학원

한빛고시학원

www.hanbitgosi.co.kr

8월 10일 1차시험 합격자 1084.7기 수석합격자 배출!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10명 중 7명 합격! 강령출신 합격자

한빛고시학원

www.hanbitgosi.co.kr

8월 10일 1차시험 합격자 1084.7기 수석합격자 배출!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10명 중 7명 합격! 강령출신 합격자

한빛고시학원